



13일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기동훈련'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헬기와 해양경비정, 진남도 행정선 등이 가상의 성폭행 용의자가 승선한 선박(맨 왼쪽)을 추격하고 있다. 헬기조종=전남경찰청 항공대 기장 홍원식(경정)·부기장 박철희(경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외딴 섬까지 경찰 신속 출동 “범죄 꼼짝마”

르포-전남경찰청 '도서지역 합동 기동훈련' 헬기 탑승 취재해 보니

헬기·선박 동원 치안활동...육·해·공 입체적 공조 범인 체포 섬 주민 곁에 상시 순찰하는 경찰 있다는 신뢰감 주기 성과

13일 오전 10시 광주공항내 전남지방경찰청(이하 전남청) 항공대원들의 열굴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전남청은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전남청·전남도·서해해경·전남소방본부) 합동 기동훈련'을 전국에서 처음 진행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전남 섬지역에서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전문수사관들은 선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청은 헬기를 활용한 섬 치안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훈련상황으로 설정한 강력사건은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서 일어난 70대 여

성 성폭행 상해사건이다. 불법 조업하던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3명이 내려 홀로 사는 노인(여·74)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2명은 아산, 1명은 배로 도주한 상황이다.

오전 10시30분 전남청 112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받은 항공대는 경찰헬기(BELL-412 기종)를 띄웠다. 헬기를 조종하는 홍원식 항공대장(경정)은 "이 기종은 최대 속도가 시속 258km로, 전남 해안에서 가장 먼 거제도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한다"며 "풍속이 초속 30m를 넘거나 가지 거리가 1.6km 이하만 되지 않는다면 눈비에 상관없이 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0m 높이에서 평균 시속 220km로 비행한 헬기는 이륙 20분 만에 신안군청 헬

기장에 도착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남청 광역수사대,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을 실었다. 같은 시각 119와 조도파출소 직원들은 신고자 집에 당도해 피해자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경찰헬기가 하조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10분이었다. 출발 40분 만이었다.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2시간20분이 걸리는 거리다.

영암 전남소방항공대에서 출발한 소방헬기는 이미 도착해 부상자를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수사관들과 배편으로 도착한 해경, 경찰은 아산을 중심으로 합동 수색했고 경찰 헬기도 공중에서 도왔다.

오전 11시35분 합동 수색조가 용의자 2명을 검거했을 때 다른 1명은 선박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었다. 행정선은 용의자가 탄 선박을 추격했고 경찰헬기도 곧바로 뒤따랐다. 연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양경비정과 행정선은 용의 선박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를 차단했고 헬기는 높이 20m까지 비

행고도를 낮춰 용의자를 압박했다. 11시 45분 선박 나포에 성공한 경찰이 압황을 유도해 용의자를 수사관들에게 인도하면서 훈련이 종료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안건으로 채택된 '안전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다. 전국 섬의 64%(2165개)가 물려 있는 전남지역 치안 상황에 맞춰 헬기를 활용해 신속성을 확보하고 전남도·소방·해경 등이 유기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헬기를 활용한 섬지역 점검을 나서 '염전노예'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훈련을 기획한 박승희 전남청 여성보호계장은 "도서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폐쇄적인 분위기였는데 섬 주민들에게도 경찰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길 바란다"며 "1년에 2회 이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협업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핫플레이스 동명동에 무슨 일이... 차량 타이어 잇단 바람빼기...누가, 왜?

초동수사 늦어져 범인 오리무중

누군가 일부러 동명동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바퀴의 공기를 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바퀴에 바람이 빠진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던 주민들은 사고가 날 뻔 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한 탓에 초동수사가 늦어져 범인의 윤곽이 오리무중이다.

광주동부경찰과 동명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중인 A(여·53)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밤 11시께 일을 마치고 담양의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에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운전대 조작이 되지 않는 이상 증세를 느꼈다. 차량을 확인해보니 운전석 쪽과 뒷바퀴 등 타이어 2개의 공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박씨는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수리 결과, 타이어 마개가 열려 있고 작은 돌이 끼워져 있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일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숙박업소 인근에 SUV차량을 세워뒀던 B(여·50)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바퀴 바람이 빠져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은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는 사실 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으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 홈페이지의 서류양식을 내려 받아 동부경찰서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B씨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일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재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지 못했고, 심지어 타이어에서 범인 지문을 뜨려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밖에도 피해가 적고 번거로우니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늘어서만 10여 건에 달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경찰은 골목길에 번잡해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의 소행이거나 일대 상가에서 술을 마신 젊은이들의 단순 분풀이 사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징역 10년 추가 구형

임명규 전 의회의장은 3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사택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용역을 맡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된 임명규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 대해 관급공사를 수수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군수는 관급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보성지역 업체로부터 4억80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군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축구하다 의식 잃은 남성, 소방학교 교육생 도움으로 구사일생



○...조기 축구회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이 같이 뛰던 소방학교 교육생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학교에서 신입 소방사관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강종구·김대엽 교육생은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임곡초등학교에서 조기축구회원 양모(53)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급급차가 도

착할 때까지 20여분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이들은 "평소 같이 운동하는 회원이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떨렸지만 바로 소방사관 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다. 양씨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공무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합박 웃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상화폐 법인 투자 피어 수익원씩 쟁건 일당 검거

법인 폐쇄로 수백명 피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해외 가상화폐 온·오프라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원의 이득을 쟁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유

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7)·B(57)씨와 C(여·52)씨를 구속하고, D(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회에 걸쳐 약 47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만들어 수익원 상당의 추천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D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4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71회에 걸쳐 약 18억원 상당의 투자를 하도록 한 뒤 각각 추천만원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추천수당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 가상화폐 운용법인 '비트코넵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일 1%의 배당수익

이 발생하며 투자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 아래로 하위투자자를 많이 모집해 추천수당을 받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추천수당으로 약 7억8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해당 가상화폐 법인이 폐쇄됐고, 투자자들은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 잃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